



닥터 윤  
심리상담발달센터

성심인성연구원

한국형에니어그램이 만들어 가는 상담 복지 교육매거진

월간

# 나눔과 힐링

'월간 나눔과 힐링'은 매월 25일에 발간하여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의 소식과 학술단체 및 복지단체의 소식을 전하는 통합 매거진입니다.

www.kenneagram.com

ISSN 2288-2251

등록번호 : 금천 라 00140호

## 제 50 호

2017년 5월 25일~2017년 6월 24일

발행인 · 편집인 : 윤운성

기사제보 : 02-3446-3165 / FAX : 02-515-6784

인쇄 :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blog.naver.com/kenneagram





한국형에니어그램이 만들어 가는 상담·복지·교육 매거진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www.kenneagram.com](http://www.kenneagram.com)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1116호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TEL. 02) 3446-3165 | FAX. 02)515-6784 | Email. [help@kenneagram.com](mailto:help@kenneagram.com)

## C · O · N · T · E · N · T · S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를 통한 힐링</b> 03<br/>에니어그램의 사랑의 결핍<br/>(Marcela Di Nenno)</li> <li>• <b>책 읽어주는 상담가</b> 05<br/>박현경 전임교수<br/>신화와 심리학이야기 - 디오니소스와 SP 기질 &lt;3부&gt;</li> <li>• <b>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b> 07<br/>딸에게 들려주는 결혼이야기 출간</li> <li>• <b>에니어그램과 성장프로그램</b> 09<br/>에니어그램과 함께 영혼잠재력 발견하기<br/>내면의 여행을 돕는 용어 1</li> <li>• <b>에니어그램 교육후기</b> 11<br/>한국형에니어그램 교육후기</li> <li>• <b>에니어그램으로 보는 세상</b> 13<br/>에니어그램과 돈 : 두려움에서 사랑까지<br/>목적설정 : 영역 4,5,6 &lt;2부&gt;</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에니어그램과 영화</b> 15</li> <li>• <b>연구소 소식 및 회원동정</b> 17<br/>연구소&amp;센터소식, 회원 및 전문강사 동향</li> <li>• <b>연구소 교육일정</b> 19<br/>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교육일정</li> </ul> |
|---|---|

## LA FALTA DE AMOR EN CADA ENEATIPO

Marcela DI Nenno

UNO: La crítica sin amor..... te hace implacable

DOS: La servicialidad sin amor .....te hace servil

TRES: El éxito sin amor..... te hace arrogante

CUATRO: La belleza sin amor..... te hace ridículo

CINCO. La riqueza sin amor .....te hace avaro

SEIS: La ley sin amor .....te esclaviza

SIETE: El trabajo sin amor... se vuelve rutinario

OCHO: La autoridad sin amor ....te hace tirano

NUEVE: La pereza sin amor .....no te compromete

Como verás... **LA VIDA SIN AMOR NO TIENE SENTIDO!!!!!!**

## 에니어그램의 사랑의 결핍

Marcela DI Nenno

- 1번: 사랑이 없는 비판은 ..... 당신을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 2번: 사랑이 없는 봉사는 ..... 당신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 3번: 사랑이 없는 성공은 ..... 당신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 4번: 사랑이 없는 아름다움은 ..... 당신을 우습게 만듭니다.
  - 5번: 사랑이 없는 재물은 ..... 당신을 탐욕스럽게 합니다.
  - 6번: 사랑이 없는 규칙은 .....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 7번: 사랑이 없는 일은 ..... 당신을 지루하게 만듭니다.
  - 8번: 사랑이 없는 권위는 ..... 당신을 폭군으로 만듭니다.
  - 9번: 사랑이 없는 게으름은 ..... 당신을 다름 속에 있게 만듭니다.
- 당신도 알다시피 ..... 사랑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 신화와 심리학이야기

## 디오니소스와 SP 기질

### 〈3부〉

박현경 전임교수

## 2. 디오니시우스적 성향

디오니소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용기를 되살아나게도 하며, 두려움을 몰아내게 할 수도 있다. 그밖에 디오니소스는 세상에 변형을 가르친다. 겨울동안 포도덩굴은 칙칙하고 시들어 있지만, 봄이 되면 초록으로 움터서 자라고 마침내는 여름과 가을 추수기에는 포도가 열린다. 이러한 변형은 극적(dramatic)이다. 명백한 죽음에서 생생한 생명과 풍요함으로의 변형, 게다가 포도는 술이 되어 또다른 극적인 변형을 보여준다.

디오니소스의 신화 내용은 서구에서 예술과 인간 성격을 대변하는 모델로 아폴론적 성향과 자주 대비되고 비교되어 설명된다. 니체는 그의 예술론에서 서양의 예술 활동 유형을 두 가지 반대되는 성향으로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디오니소스형과 아폴론형으로 대비하였다. 디오니소스형은 동적(動的), 군집(群集), 정(情)의 특징을 가진 유형. 심리학적으로 도취(陶醉) 영역에 속하며, 아폴론형은 정적(靜的)이고 개별적, 몽상적이며 조화, 통일, 단정한 질서를 지향하는 주지적 경향을 대변한다고 하였다.

Karen Horney(Shostrom, 1967)는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모두를 자연스런 인간적인 '경향성'으로 보고 있는데, 전자는 지배와 형태의 구현으로, 후자는 복종과 충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둘 중 어느 것이 낫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한쪽 관점만을 가진 사람도 없다. 대부분의 사



아폴로와디오니소스

람들은 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어느 한쪽의 경향성을 보일 뿐이다. 아폴로적인 경향성을 보일 때는 책임감있고 사물을 조절하고 만들어낸다. 목표는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디오니소스적인 경향성은 우주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야성을 경험하고 자연을 이해하여 마침내 세상 그 자체에 긴장을 풀고 수용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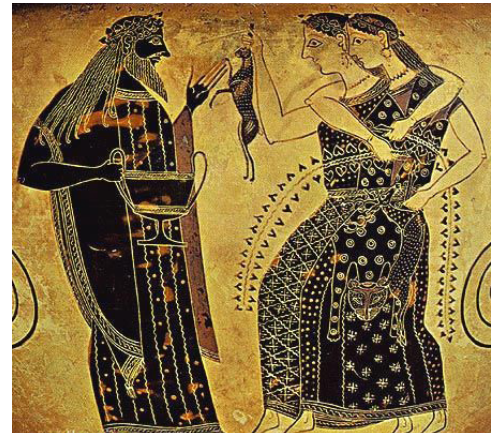
니체와 Horney가 사용한 이 용어보다는 덜 시적이지만, "과학자", "예술가"란 평이한 용어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 용어 역시 두 세계관을 보다 분명하게 해준다. 물론 과학자가 인생에 대한 관점과 접근에 있어서 더 아폴로적이다. 순수한 과학자에게는 목표가 설명과 이해, 세상에 대한 예측과 증명이다. 세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찰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과학자의 목표이다. 과학자와는 대조적으로 예술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세상을 관찰하고 표상하려 한다. 세상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심미안을 통해서 세상을 조명하고 반영하려 한다. 그래서 과학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데 반해, 예술가는 세상을 심미적인 태도로 경험하려 한다.

아폴로적인 성향-디오니소스적인 성향과 유사하게 Jung(1970)은 "logos" 원리와 "eros"원리를 이야기했다. logos원리는 세상에 대해 객관적인 관심을 주는 태도이다. 정서적인 태도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관점을 취하면, 바로 logos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서구사회는 logos원리를 "남성성"과 동일시 해왔다. 반대로 eros원리는 정신적 관계성(psychic relatedness)을 말한다. 이 원리는 세상과 관련한 주관적인 정서 경험이 표현된 것이다. 좀 더 개인적인 친밀한 경험양식을 통해 사람, 동물, 사상, 심지어는 무생물에게까지 관계성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관계성을 서구사회에서는 "여성성"으로 보았다. 분명하게 하자면 logos원리는 아폴로적인 성향과 대응되면 eros원리는 디오니소스적인 성향과 일치한다.

〈4부〉에서 계속



광란하는 메나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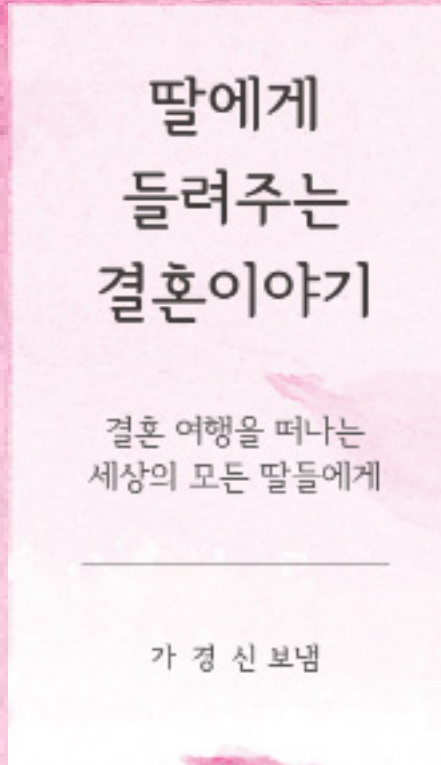


디오니소스와 디오니소스의 사제

딸에게 들려주는 결혼이야기 출간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에서는 에니어그램과 심리학, 상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서적 출판을 위한 <내 안의 거인> 출판사를 등록했고, 첫번째 작품으로 <딸에게 들려주는 결혼 이야기> 에세이 집을 출간 하였습니다.

내 안의 거인



딸에게 들려주는 결혼이야기  
가경신 저

저자 / 가경신  
펴낸 곳 / 내 안의 거인  
출판등록 : 제2017-000029호  
ISBN : 979-11-961085-0-2

책소개

'결혼은 여행이다'라는 저자의 말에 동의한다면, 결혼은 이미 고생을 각오하고 시작하는 미친짓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은 여행자의 명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날까? 아마도 여행을 준비하는 설렘, 여행 중에 만나는 그 낯선 기쁨,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평안함과 따뜻한 추억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도 여행이라는 저자의 생각은 결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되짚어 보게 한다.

여행을 위한 지침서가 있듯이 결혼생활에도 지침서가 있다면 덜 헤매고 덜 고생할 지도 모른다. 이 책은 그런 책이다. 5년의 연애와 34년의 결혼 생활 근 40여 년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키워가며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온 소소한 비결들이 이 책 곳곳에 숨어있다. 사랑하는 딸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저자의 삶은 차마 '소소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자의 사랑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때로 경쾌하게, 때로 따뜻하게, 그리고 때로 코끝 찡하게 와 닿는다. 엄마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주는 위로와 충고는 경건함마저 느껴진다.

결혼은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 행복과 사랑은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따뜻함과 세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차근차근 살펴야 찾을 수 있다. 때로는 없는 행복을 만들어가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결혼은 피순 마음과 눈길로 사람을 보듬으며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딸에게 들려주는 결혼이야기'는 결혼을 앞둔 딸에게 평범한 엄마가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써 내려간 글이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생활의 행복 비결을 과함도 모자람도 없이 차분하게 풀어간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연애편지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감동적이다. 저자의 삶이 곧 저자의 글이고, 저자의 글이 곧 저자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 더욱 믿음이 간다.

이 책은 평범한 독자들에게 희망이다. 저자가 제안한 평범한 일상의 비결들을 읽으면서, 나도 30년 쯤 살면 이런 행복한 결혼이야기 책 한권쯤 쓰게 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저자 소개 : 가경신

34년째 사랑받는 아내, 두 아이의 엄마, 7남매의 막내딸, 홀시어머니의 맘머느리, 35년째 교직에서 교사, 장학사, 교감, 교장, 장학관, 연구관, 사범대를 나와 독서교육으로 국어교육학 박사를 받았고, 최근에 새로운 도전으로 미용학사를 받았다.

나의 행복이 자식의 행복이라고 굳게 믿는 이상주의자. 사랑은 결코 실



패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랑꾼.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고, 교사는 아이들을 보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열지기 교육자. 어른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꿈꾸는 몽상가. '119 운동' 컴퓨터 키기 10분전 독서 운동'주창자라고도 자칭한다.

함께 쓴 수필잡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요(양서원) 번역서'변화하는 사회속에서의 자기 효능감(학지사) 그리고 '국어교육 방법론(박이정)' 등이 있고, 다수의 강의와 원고를 쓰고 있다.

### 〈책 속에서 & 밑줄 긋기〉

- 어떤 좌절의 순간이 와도 너는 너라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결혼의 출발이자 종착점이다. - p20

- '착하다'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동사가 아닌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형용사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 의무 때문에 착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이미 착한 것이 아닐 게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공연히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되겠다고 서성이지 말거라. - p52

- 세상의 모든 일은 정도는 있지만 왕도는 없다. 정도란 본질을 향해 바르게 가는 길이라면, 왕도는 가장 쉽고도 좋은 길이겠지. 그러나 세상에 언제나 꽃길만 걷는 왕도는 없다. 다만 어떤 순간에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걷는 네 발자국이 만들어내는 너의 길이 있을 뿐이다. - p67

- 외로움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고독한 숙제다. 그러니 나를 외롭게 두었다고 남의 탓 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진실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단단해지고 알차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섬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 p71

- 결혼이란 존재하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행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 p80

- 역사는 혁명적으로도 변하지만 소리 없이 흐르기도 하는 것이란다. 일 년에 몇일 며느리 노릇, 딸 노릇하면서 부모가 쌓아온

삶을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말이다. 누군가의 삶을 평가할 때 현재의 높이보다 그가 날아오른 삶의 깊이와 시간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p88

- 우리도 한때 뜨거웠고 한때 푸르렀다. 그럼에도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버린 것도 잃은 것도 많다. 그러나 너희들을 보며 후회도 회한도 없이 늙어가는 중이다. 그러니 딸아, 자식이니까 그냥 잘해라. - p91

- 흔히 한자 '사람 人(인)'을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형상을 본 따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엄마 눈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에 안고 있는 자세 같아 보여. 기대어 있는 것으로 보면 아래에 있는 작은 사람은 너무 힘들지 않겠니?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사는 것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다. - p141

- 즐기는 젊음도 잠깐이다.

나이가 들면 그 기운도 사라지는 법이니,

침대에서도 충실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거라.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 p158

-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면 언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감정인 사랑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그릇이든 깨진 합치박이든, 투박하든 부드럽든, 고급지든 그렇지 않든, 사랑을 담음으로 해서 언어는 빛난다. -p191

- 내가 하는 지금의 모든 행동들이 너희들에게 유언이 된다니 얼마나 깊고도 무거운 말이나. 엄마 아빠가 죽고 나면 우리의 삶이 너희들에게 가치 있는 유언으로 기억될 지 그것이 두렵다. 엄마, 아빠가 살아왔듯이 그렇게 살라고 부끄럼 없이 말하고 죽을 수 있을까? 나의 엔딩 노트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기억하는 나의 삶이 그대로 유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 p214

# 에니어그램과 함께 영혼잠재력 발견하기

## 내면의 여행을 돕는 용어 1

### <5부>

에니어그램과 함께 영혼잠재력 발견하기 (윤운성 역, 2015) 中 발췌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 —

### 감정 중심 (Feeling Center)

감정 중심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신의 영혼 혹은 자신 외부의 진실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중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는 양심과 예술적 창조성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에니어그램의 강박에 묶여있을 때 이러한 기능들은 일상의 욕구와 감정적인 반응,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한다.

### 강박 (Compulsive)

아홉 개의 에니어그램 유형은 때때로 강박이라고도 언급된다. 이것은 각각의 유형이 뭔가 자신이 꼭 해야만 한다고 느껴지는 열정에 의해 동기부여 받기 때문이다.

### 강박적인 표현 (Compulsive Expression)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 특성 중 높은 수준을 드러낼 수도 있고 낮은 수준을 드러낼 수도 있다. 각 유형의 강박적인 표현은 성격 특성의 낮은 표현인데, 이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롭지 못하다.

### 객관적인 의식 (Objective Consciousness)

의식 성장 과정의 마지막 결과는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일이나 사람들을 있는 그 자체로 보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세 지능들이 얽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주관적인 환상의 막을 걷어냄으로써 객관적인 의식을 얻는다. 이 얽혀 있는 상태를 풀어내고 각각의 지능들이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함으로써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의식을 얻게 되면 깊은 환희와 자유를 경험한다.

### 거짓된 성격 (False Personality)

이것은 한 사람의 가장 외부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에니어그램의 강박이 생겨나는 곳이다. 이것은 잠들어 있고, 진정한 의지나 진정한 의미의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의식에서 이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설사 깨어있고 의식하더라도 몽유병 상태와 같다.

### 고요한 관찰자 (Silent Witness)

자신을 비난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요한 관찰자는 설명을 달지 않는다. 이것은 어두운 방에 불을 켜서 방안에 있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이것은 때때로 자기 관찰이라고도 불린다. 이 행동의 목적은 내면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요한 관찰자를 사용해서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고 어떤 감정과 생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감정과 생각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책임 맡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대개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고요한 관찰 과정을 통해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자신이진정으로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때때로 이것은 내면의 관찰자, 관찰하는 나, 관찰하는 에고라고도 불린다. 이 내면의 능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영적 추구의 전통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뛰어난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진다.

### 공격형 (Aggressive Stance)

3번, 7번, 8번의 세 유형은 감정 중심을 억압한다. 이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감정을 알아차리는 지능이 결여되어 있어 공격적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자 한다.

### 근원 (Source)

이것은 창조되지 않음(영 혹은 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곳으로부터 우주의 원리가 흘러나온다.

### 도전 과제 (Challenge)

이것은 각 유형이 가진 의식 성장을 위한 목표이다. 이것은 세 지능의 중심이 균형을 잡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독특한 탐구 여행이다.

### 변형 (Transformation)

이것은 한 개인의 의식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 객관적인 의식을 이루는 과정이다. 신성과의 신비한 결합, 자아실현).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론은 의식으로 가는 길의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다. 에니어그램의 아홉 가지 성격은 지능의 세 중심-사고, 감정, 행동-의 다른 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에니어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포함을 통한 균형에 의해 변형을 추구할 수 있다. 변형의 과정은 한 사람을 거짓된 자아로부터 진아를 되찾는 과정이 될 수 있다.

### 사고 중심 (Thinking Center)

지능 중심, 혹은 사고 중심의 목적은 분별이다. 이 중심의 기능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창조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에니어그램의 강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고 중심은 대개 의견, 분석, 정보 수집의 영역에서만 작동한다.

### 상처 (Wound)

한 개인의 에니어그램 강박은 어린 시절에 지능의 세 중심 중 하나를 상처를 입음으로써 형성된다. 배신은 사고 중심의 상처이며 소원함/감정적인 격리는 감정 중심의 상처이며 버려짐은 행동 중심의 상처이다. 이 상처는 그 중심을 억압하고 억압된 중심은 거짓된 성격을 소리 없이 조종한다.

### 선호된 중심 (Preferred Center)

에니어그램 성격에서 아홉 유형은 세 중심 중에 하나의 가치를 통해 세상을 해석한다. 이것을 선호된 중심이라고 부른다. 2번, 3번, 4번들 감정 중심의 가치를 통해 세상을 본다. 그래서 이들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노력한다. 5번, 6번, 7번들은 정보·분석·객관성과 같은 사고 중심의 가치를 통해 세상을 본다. 8번, 9번, 1번들은 안전과 에너지 분출과 같은 행동 중심의 가치를 통해 세상을 본다. 선호된 중심은 사람들의 관심을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게 하는 렌즈의 역할도 하지만 다른 두 중심은 인식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지나쳐버리게 하는 블라인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선호된 중심을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 중심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많은 힘과 재능이 개발된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피상적이고 파괴적인 자질이 커져서 거짓된 성격을 만들어낸다.

다음 편에 계속...

# 한국형에니어그램 교육과정 후기

2017년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3단계와 검사해석과활용 교육과정을 수강하신 배정희 선생님의 소감입니다.

## Three Go~!

새로운 것에 잘 매료되고 또 빠지기 좋아하는 나는...

심화교육으로 만난 에니어그램에 또 퐁당~

1,2 단계를 거쳐 첫 관문인 3단계에 이르기까지...

배우면 배울수록 어찌 그 안에 내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지...  
또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얼마나 잘한 선택과 변화의 연속인지...  
놀랍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3단계에서 만난 윤쌤~

10시간의 수업이 마냥 짧기만 한 듯..  
수업 마칠 즈음엔 5시간쯤 더 해도 끄떡 없겠다..  
싫었는데



집에 도착, 씻고 누우니 등이며 허리며 안쭈신데가 없다.

이렇게 힘든 것도 모르고 몰입했었다니....

1,2 단계에서 여러가지 퍼즐 조각들을 하나 하나 모았다면

3단계 수업은 그 퍼즐들이 머리 속에서 ping~ ping~ 소리를 내며  
여기저기서 하나 둘 맞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 번 만 더 수강하면  
뭔가 그림이 또렷하게 가슴에 남을 것도 같은데...

여튼 3단계 교육은 내게 참 의미있는 하루였다.

윤쌤 한말씀 한말씀..마음에 남았고

특히 노희경 작가 이야기..

또 프로파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따끔한 충고까지..

배운 것도 많았지만 앞으로 더 배우고 싶어지게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돈의 9가지 영역

## 생존하기

## 목적설정: 영역 4, 5, 6 &lt;2부&gt;

## 영역 5: 지식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어떻게 사물이 작용하는 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영역 5는 겉으로 보기에는 돈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영역 5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돈이 작용하고, 돈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에서 깊이 있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영역은 또한 우리의 온전함, 자신감, 깊은 지혜에 대한 것이다. 영역 5의 작업은 영역 4의 작업을 마친 뒤에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의미가 이해를 앞서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동기가 생길 뿐이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끈다. 돈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영역 4의 작업을 마쳤다면, 이제 어떻게 돈이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길 것이다. 생각해 보아야 할 세 가지 부분이 있다.

## 1. 돈에 대한 지식

돈에 대해서 그리고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이해하는가? 나는 예산과 저축의 관계를 이해하는가? 나는 투자 방안을 이해하는가? 나는 위험과 수익의 교환을 이해하는가? 나는 저축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미래의 생활방식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는가?

## 2. 돈에 대한 학습

나는 돈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나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나는 행함을 통해 배우는가? 독서를 통해 배우는가? 나의 삶에서 돈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었는가?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 3. 돈에 대한 지혜

돈에 대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인가? 다양한 사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내 삶의 다양한 부분이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온 삶에 통합시킬 수 있을까?

영역 5는 우리가 체념하게 되는 영역이 될 수 있다. 이 주제가 너무나 크고 복잡하며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돈을 둘러싼 걱정으로 인해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무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돈은 나쁜 것이어서 어떻게 돈이 작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로 하여금 돈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지식은 열매를 맺기 위한 관문이다.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빼앗기게 된다. 지식이 진정 힘이다.

- 나는 돈에 대해 아는 것이 거북하다. 나는 내 입맛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지나치게
- 고급인 것을 아는 것이 두렵다. 나는 나의 생활수준을 지속할 수 없을까봐 두렵다. 내가 알게
- 된다면 만사가 필연적으로 더 나쁜 방향으로 바뀌게 될까봐 두렵다.
- 납세 기간이 되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나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
- 에 무력감을 느끼며 이런 일은 두렵기만 하다. 나는 이 영역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 것에 대해 상당히 수치심을 느낀다.
- 돈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고 관심도 없다. 나는 내 돈을 관리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 다. 투자 대안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내게 너무나 지루하다.
- 돈이라는 주제는 나에게 무력감과 거부감을 동시에 안겨준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지만,
-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다. 걱정하고 싶지 않고 돈을 일일이 관리하고 싶지도 않다.
- 돈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가 좋지 않다. 돈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에 대한 경험과
- 교육과 배경이 없고 그저 낯설기만 하다. 돈은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돈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것 그 이상을 얻는 것이다. 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큰 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미구잡이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 이리저리 휩쓸리고 희생당한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된다. 우리는 사물이 언제나 개인적으로 우리를 향해 움직이는 것은 아님을 깨닫는다. 지식을 갖고 이해를 하면 삶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해할 수 있다. 우리는 사물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이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며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해준다. 돈에 대한 무지는 진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훼손한다.

방향을 설정하고 돈에 대해 이해하려면 호기심을 가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먼저 아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앞 속에 존재하는 선물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다음 당신이 학습의 과정에 들어서기 시작할 때, 돈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접목시키며, 이것을 당신에게 의미있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 돈을 이해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하라.

1.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2. 내가 돈을 잘 이해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3. 세속적인 또는 영적인 수련으로써의 돈에 대한 이해

<3부>에서 계속



# 영화와 에니어그램

## 영화란?

지배하는 내적 세계, 등장 인물의 내용에 맺어졌다 풀어지는 세계만이 영화에 그 움직임, 참된 움직임을 준다.

-R. 브렛송-

우리는 인생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또 알고 또 알았다. 넌더리나게 알았다. 영화의 덕분으로

-D.H.로오렌스-

영화는 본질적으로 초현실주의적이며, 영화는 인생의 잠재적 내용에 대해서 꿈꾸어진 표현 수단이다.

-A. 키루-

영화는 인생의 개인 강습소가 될 것이다.

-E. 케스트너-

남편과 같이 영화관에 간 한 오랑여인이 주인공의 불행을 보고 훌쩍훌쩍 울고 있다. 남편이 울음을 그치라고 간청하자 울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이 기회에 실컷 울게 내버려 두세요.'

-A. 카뮈/비방록-

연극이 삶과 밀접한 예술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연극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느끼기 쉽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A.프랑스/에피큐르의 회원-



## 영화란?

영화란 스크린 위에 움직이는 영상과 음향으로 이루어진 예술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그림. 활동사진이다. 어떤 이는 영화를 일컬어 문학, 예술, 음악, 무용, 건축, 연극에 이은 "제 7의예술" 이라고도 하고 종합예술이며 기계복제예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영화는 정지된 사진들을 빠르게 돌려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에 의존한 것이다. 즉 현실의 재현이면서 동시에 비현실적인 그 무엇이다. 그래서 영화는 환영, 환상, 몽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관객이 영화를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면 안 될것을 엿보는 것, '훑쳐보기'이다. 열쇠구멍으로 남의 방을 몰래 엿보는 일은 얼마나 짜릿하면서도 가슴 두근거리는 일인가?

남의 사랑, 남의 은밀한 행위, 남의 삶을 엿보는 것은 보통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관음증'이라 하는데, 영화는 그것을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 만들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에 더욱 빠져 드는지도 모른다. 관객이라는 안전한 위치에 있으면서 등장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평소 할 수 없었던 섹스나 폭력 같은 '금기의 위반'을 꿈 꿀 수 있는 것이 영화의 숨은 구실이라.

영화는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남의 삶, 그 구체적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 문학이나 다른 예술과 비슷한 점이 많다. 간접체험을 통해 인생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쌓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를 우리 삶의 지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조심할 점이 있다.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말려들 것이 아니라 늘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즐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영화의 모습은 인생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영화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영화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영화는 우리자신의 모습을 폭로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혹은 모르든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영화의 대사에서처럼 영화의 등장인물은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들 마음의 내면의 윤곽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한다.

좋은 영화는 인생을 보다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약 2시간의 짧은 상영 시간을 통해 영화는 인간의 본질들과 진정한 동기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 영화 속의 제스처를 이야기함으로써 영화의 등장인물들의 에니어그램 유형에 따른 근원적인 성향과 동기를 알 수 있으며 이 또한 우리 내면을 이해하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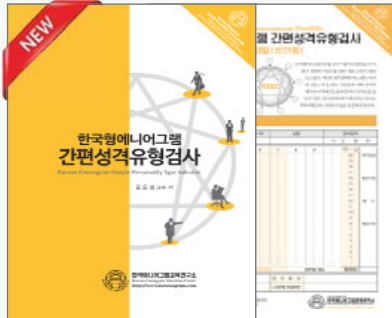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 검사도구 및 출판도서를 소개합니다.

구매문의 02)3446-3165

※ PDF 파일을 다운받아 도서 표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한 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사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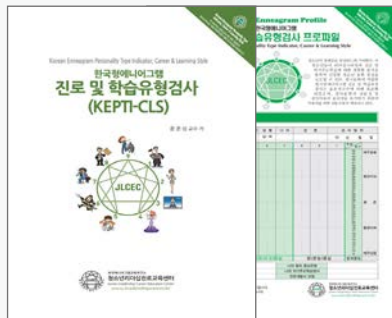
**KESPTI**  
한국형에니어그램 간편성격유형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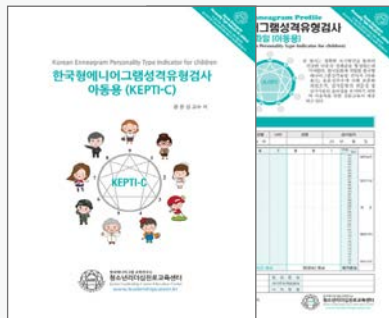
**KEPTI**  
한국형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KEPTI-J**  
한국형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청소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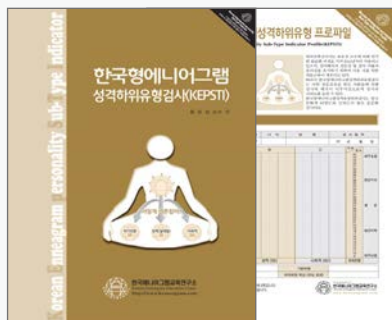
**KESPTI-CLS**  
한국형에니어그램 진로 및 학습유형검사



**KEPTI-C**  
한국형에니어그램 아동용 성격유형검사



**KEPTI-Y**  
한국형에니어그램 간편성격유형검사 아동·청소년용



**KEPSTI**  
한국형에니어그램 성격하위유형검사

위 검사지는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형에니어그램 1단계 이상 수강자에 한해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Korean Enneagram Education Center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1116호  
TEL. 02)3446-3165 FAX. 02)515-6784 Email. [help@keneagram.com](mailto:help@keneagram.com)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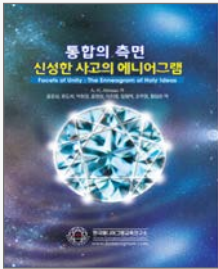
# 검사도구 및 출판도서를 소개합니다.

구매문의 02)3446-3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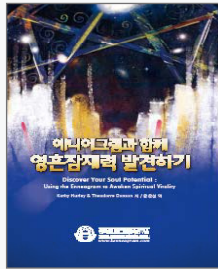
※ PDF 파일을 다운받아 도서 표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한 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판도서

더 많은 도서 확인하러 가기!



• 통합의 측면 : 신성한 사고의 에니어그램



• 에니어그램과 함께 영혼잡재력 발견하기



• 한국형에니어그램 사례집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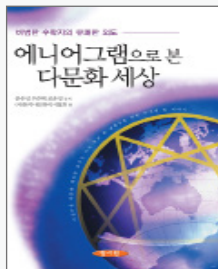
• 에니어그램 실제 가이드



• 에니어그램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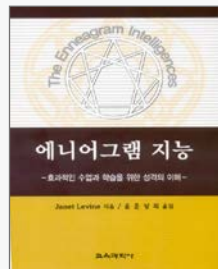
•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 에니어그램으로 본 다문화세상



•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9가지 성격



• 에니어그램 지능



• 에니어그램 2



• 에니어그램과 돈 : 두려움에서 사랑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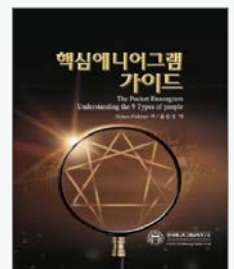
• 에니어그램을 통한 지혜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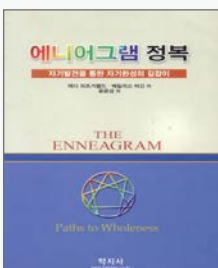
• 에니어그램의 깨달음



• 집단지능과 번영을 위한 9가지 설계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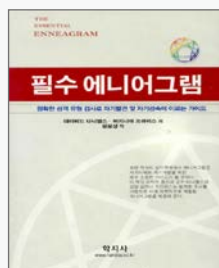
• 핵심에니어그램 가이드



• 에니어그램 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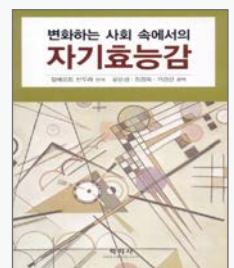
• 영화로 배우는 심리학개론



• 필수 에니어그램



• 한국형에니어그램 사례집



•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에니어그램성격연구회 1주년 기념식



사단법인 성심인성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성격심리학 이론을 공부하는 연구모임인 <에니어그램성격연구회>가 2017.04.27일 1주년을 맞이하였다. 에니어그램성격연구회는 2016년 4월부터 시작된 연구모임으로 사단법인 성심인성연구원의 박현경 소장의 지도로 심리학과 상담 에니어그램의 지혜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이 교학상장하는 모임이다. 1주기를 맞이하여 회원들은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연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2017년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 사단법인 성심인성연구원 통합여행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 사단법인 성심인성연구원은 2017년 4월 29일 소무의도에서 2017년도 통합여행을 가졌다. 자연 속에서 회원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에니어그램이 추구하는 본질에 다가가고 통합으로 가는 여행을 통해 행복 속에서 머무는 시간을 보냈다.

한국형에니어그램 사례연구 및 슈퍼비전



한국형 에니어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정신영성적 성장(psychospiritual growth)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교육 및 상담, 코칭 장면에서 내담자의 정신영성적 성장을 돕고자 하는 <한국형에니어그램 사례연구 및 슈퍼비전>이 지난 2017년 5월 13일 황임란 교수의 슈퍼비전 하에 진행되었다. 사례는 <날 자기보다 밀이라고 깎보는 사람이 싫어요.>라는 주제로 천영희 선생님이 발표를 하였고,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토론은 사단법인 성심인성연구원의 박현경 교수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대구교육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상담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교육



대구교육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상담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교육의 일환으로 2017.5.5- 6.12까지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 합동강의실에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50명을 대상으로 한국형에니어그램 1단계와 2단계 교육이 박현경, 황임란 교수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이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은 학생상담의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상담자 자신의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속초YWCA가정폭력상담소 한국형에니어그램 일반강사과정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는 강원 속초 지역 상담가들을 대상으로 <속초YWCA가정폭력상담소 한국형에니어그램 일반강사과정>을 2017.06.03-17 일 지미선, 박현경 교수의 지도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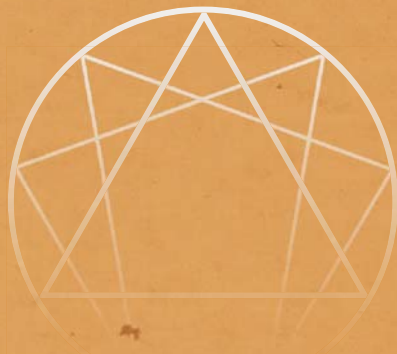
이후 일정은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7  
JULY 2017

SUN	MON	TUE
2	3	4
* 인천통합 3단계 09:00-19:00 / 인천교육장 지미선 전임교수		
9	10	11
* 4단계 상록리조트 전임교수 교수진		
16	17	18
23/30	24/31	25
* 리더십지도자 09:00-18:00 / 서울교육장 지미선 전임교수		
* 30일서울통합3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윤천성 전임교수		

WED	THU	FRI	SAT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검사지 14:00-17:00 / 대구교육장 이도경 전임교수</li> <li>* 인천통합 2단계 09:00-19:00 / 인천교육장 박현경 전임교수</li> </ul>
5	6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조주영 전임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단계 상록리조트 전임교수 교수진</li> </ul>
12	13	1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이도경 전임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3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지교육 09:00-12:00 / 서울교육장 지미선 전임교수</li> <li>*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검사</li> </ul>
19	20	2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황은신 전임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코칭지도자 09:00-18:00 지미선 전임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코칭지도자 09:00-18:00 지미선 전임교수</li> <li>* 상담실제 10:00-18:00 / 서울교육장 박현경 전임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십지도자 09:00-18:00 / 서울교육장 지미선 전임교수</li> </ul>
26	27	2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교육연수원</li> </ul>	아산지역중학생비전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통합 1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지미선 전임교수</li> </ul> <p>아산지역중학생비전캠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통합 2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황임란 전임교수</li> </ul>

본 지에 나온 내용의 무단전제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



ISSN 2288-2251  
등록번호 : 금천 라 00139호  
2017년 5월 25일~2017년 6월 24일  
편집기획 : 박현경

발행인 · 편집인 : 윤운성  
기사제보 : 02-3446-3165 / FAX : 02-515-6784  
인쇄 : 한국에너지그림교육연구소  
편집위원 : 김새한별, 안신영, 윤완진

'월간 나눔과 힐링'은 매월 25일에 발간하여 한국형에너지그림의 소식과 학술단체 및 복지단체의 소식을 전하는 통합 매거진입니다.